KR

나의 작업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감정에서 출발한다. 감정은 흩어지고, 스며들며, 표류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러한 감정의 상태는 비물질적으로 증발하는 순간과 육체 를 짓누르는 무게를 지닌 순간 사이를 오간다. 때로는 아무런 실체도 없고, 때로는 분명 한 무게를 지닌다. 나는 이러한 모순을 지각하고, 상상하며, 다시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나 자신의 위치를 질문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긴장 속에서 단절이 아닌 점 진적인 변화를 통해 삶의 경험을 통과해 나간다.

'변형(Transformation)'은 내 작업의 중심 개념이다. 현실이 왜곡되어 비현실로 넘어가는 경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잠재적이고 격렬한 감정의 힘이 드러난다. 그 힘으로부터 탄생하는 형상들은 혼성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상처 입었거나 의도적으로 미완의 상태에 머문다. 이러한 형상들은 인간 존재의 경계를 질문하는 사유의 형상으로 기능한다. 그것들은 인간 중심적 전제들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유할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나의 시각 언어는 혈관, 골격 구조, 세포 조직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내부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조직들은 생명의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작동하며 살아 있는 존재를 지탱한다. 그것들은 몸을 더 이상 고정된 형태가 아닌, 끊임없는 변형과 긴장, 그리고 취약성이 교차하는 장소로 바라보게 한다. 따라서 나의 회화 공간은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머물며, 존재를 관통하는 연약함과 불완전함, 그리고 덧없음을 품고 있다.

나의 작품은 하나의 선형적인 이야기나 외부의 설명을 통해 해석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히려 이미지 자체의 논리에 의해 유지되는 감정의 자율적인 잔여물로 존재한다. 각각의 회화는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압력이자, 몰입과 분출, 절제와 과잉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흔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형의 공간 속에서 회화는 더 이상 세계를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닐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새롭게 상상하고 재구성하는 장소가 된다.

TAEHO CHOI